

의미에 대한 포괄기능주의(wide functionalism)적 접근*

강 유 신
(서울대 철학과 석사)

1. 들어가는 말

인간의 언어 활동에 대한 탐구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탐구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의미'에 대한 탐구는 크게 언어학적 탐구와 형이상학적 탐구로 구분될 수 있다. 언어적 탐구는 특정 언어(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그 언어로 이루어진 특정 표현의 의미를 특정한 표현 구성 방식(예를 들어 한국어의 구문 구조 원리)에 의존하여 탐구하는 반면, 형이상학적 탐구는 특정 언어에 제한적인 것이 아닌 의미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 즉 '의미의 본성'을 탐구한다. 본 글은 바로 이 후자의 탐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본 글의 가장 큰 목적은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혹은 적어도 그럴듯한 답변 제공에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본 글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개념적 역할 의미론(Conceptual Role Semantics, CRS)'이 제공하고 있는 답변들이 얼마나 그럴 듯 한 것인가를 주된 탐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의미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의미의 본성이 갖는 여러 측면들을 지적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의미의 본성은 크게 표상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상적 측면은 언어적 표현과 외부

* 본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의미에 대한 포괄기능주의적 접근'을 수정, 요약한 것이다. 지면의 한계상 주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논증 사항들을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위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과의 상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의미와 진리의 문제를 함축한다. 이와는 달리 인지적 측면은 언어적 표현과 표현 사용자와의 상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의미와 이해의 문제를 함축함으로써 의미론(semantics)의 중심 문제를 진리가 아닌 이해에 둔다.

‘의미의 본성이 표상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갖기 때문에 의미는 이해 및 진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라고 정리될 수 있는 위의 지적은 언어적 의미에 대한 탐구가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할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CRS가 의미에 대한 올바른 탐구이기 위해서는 의미의 본성이 갖는 위 두 측면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념적 역할 의미론, 즉 CRS는 단어W의 의미를 단어W가 소통이나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사용되는 방식(혹은 용법, 쓰임새, 역할, 기능)을 통해 규명하려는 ‘의미 사용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CRS는 단어의 용법에 단어가 일종의 시스템인 컴퓨터 혹은 뇌 안에서 갖는 역할 및 반사실적인 용법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의미 사용 이론을 확장한다.

이러한 CRS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concept)이나 사고(thought)의 내용(content)을 통해 확인될(identifying) 수 있고,
- ② 개념이나 사고의 내용은 그것이 갖는 역할(개념이나 사고가 그것들의 작용에 있어 말아서 해야 할 일 혹은 하는 일)에 의해 결정되며,
- ③ 개념이나 사고의 역할은 개념이나 사고가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 체계 내부에서 다른 개념이나 다른 사고들과의 관계를 통해 갖는 추론적 역할(inferential role)과 그것들이 외부 환경적 발생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환경적 역할(environmental role)을 모두 고려함으로써만 올바르게 상술될 수 있다.

그런데 표현의 의미를 개념의 역할을 통해 규명하려는 이러한 시

도는 개념의 역할을 어떻게 제한하는가에 따라 한-요소 CRS 혹은 두-요소 CRS로 구분될 수 있다. 한-요소 CRS는 Harman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입장으로 개념의 진정한 역할은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통합을 통해서만 상술될 수 있다는 노선이다. 따라서 한-요소 CRS에서의 '역할'은 두-요소 CRS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포괄(wide, long-arm)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두-요소 CRS는 Block, Field, Loar 등이 주장하고 있는 입장으로, 추론적 역할만을 개념의 역할로 간주함으로써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분리를 요구한다. 두-요소 CRS는 이러한 환경적 역할의 분리를 다양한 지시 이론들을 요청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요소 CRS에서의 '역할'은 앞에서 살펴본 한-요소 CRS의 '포괄 역할'에 상대적으로 '협소(narrow, short-arm) 역할'이라 불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직면하여 필자는 한-요소 CRS를 선호하고자 한다. 필자의 한-요소 CRS 선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의미를 표현이 표현하는 개념의 역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CRS는 심적 상태를 심적 상태의 기능을 통해 확인하려는 기능주의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능주의가 심적 상태에 올바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기능주의는 협소 기능주의(Narrow Functionalism)가 아닌 포괄 기능주의(Wide Functionalism)여야 한다. 왜냐하면 협소 기능주의는 심적 상태에 대해 자극 입력(sensory input)과 행동 출력(behavioral output)에 대한 매개 역할만을 요구함으로써 심적 상태의 '시스템 내 역할'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심적 상태의 역할 상술에 요구되는 모든 유관(relevant) 측면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포괄 기능주의는 심적 상태들이 심적 시스템 안에서 갖는 역할뿐만 아니라 심적 상태와 상호 작용하는 감각 입력과 행동 출력이 환경적 발생물(environmental occurrences)임에 주목함으로써 심적 상태 설명에 있어 포괄적 인과 구조를 요청한다. 이러한 포괄 기능주의적 설명은 심적 상태의 역할 상술에 있어 유관 측면인 관계적 측면과 지시적 측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심적 상태의 내용 설명에 대한 올바른 전제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

기능주의적 설명이 함축하는 사항이 바로 한-요소 CRS임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둘째, 개념의 역할을 결정하는 두 요소의 분리를 요구하는 두-요소 CRS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갖는다. 다름 아닌 두 측면의 결합 방식에 대한 설명의 요구이다. 즉 두-요소 버전에 대해서는 추론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고, 비상식적인 잘못된 결합이 어떻게 배제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필자는 CRS에서 말하는 개념적 역할은 그 자체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요구하고자 한다. 즉 개념의 내용 확인을 결정하는 개념의 역할 상술이 올바른 역할 상술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이 개념 체계 내에서 갖는 추론적(관계적, 내적) 역할만이 아닌 개념 소유자와 환경적 발생물 간의 인과적 연결 속에서 확인되는 개념의 환경적(지시적, 외적) 역할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개념적 역할 의미론의 설명력

2.1. 올바른 의미 이론으로서의 ‘개념적 역할 의미론’

CRS¹⁾가 과연 올바른 의미 이론인가 라는 물음은 의미 이론에 요청되는 설명적 요구 사항들에 CRS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통해 CRS가 ‘의미 이론에 요청되는 설명적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첫째, 언어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CRS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가 아닌 ‘용어의 기능 혹은 역할’ 습득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 과학의 기초 개념들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쉽게 확인 될 수 있다. 새 용어를 배

1) 이하로 필자가 사용할 ‘CRS’는 모두 한-요소 CRS를 가리키고 특별히 두-요소 CRS와의 구별이 요구될 때만 ‘한-요소 CRS’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용어들로 이루어진 새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새 용어들 간의 관계, 새 용어와 구 용어 사이의 관계, 새 용어로 제시된 문제에 답을 내놓는 방법 등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 것이다. 즉 우리는 표현의 개념적 역할을 습득함으로써 표현의 의미를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습득된 역할을 통해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의미 있는 표현을 의미 있는 표현이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CRS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표현E가 의미 있는 표현인 까닭은 E가 적합한 개념적 역할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표현들 E1과 E2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이유는 E1과 E2가 갖는 각각의 개념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념적 역할 상술을 통해 의미를 설명하려는 CRS의 장점 중의 하나는 의미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즉 과학적 탐구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표현의 의미가 사고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고, 사고의 내용은 사고의 개념적 역할을 통해 상술될 수 있으며, 사고의 개념적 역할은 개념들간의 관계적 요소와 개념과 외부 대상과의 인과적 연결에서 비롯되는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바로 다른 아닌 의미에 대한 일종의 환원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탐구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셋째, 의미와 지시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한 두-요소 CRS의 답³⁾은 협소 내용과 포괄(외적) 내용의 구분을 전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Block은 '개념적 역할 요소(Block에 있어 이는 내적 요소를 가리킨다)가 지시적 요소의 본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전자가 근본적(primitive)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지시의 본성 결정 문제'와 '지시체의 결정 문제'는 구별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즉 머리 속에 있는 개념적 역할(내적 역할)은 구체적 지시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의 본

2) Block, N. (1994) 'An Argument for Holism',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ew series, 94, 151-169.

3) Block, N. (1986).

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시체는 환경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지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적 표현이 무엇을 지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표현이 갖는 개념적 역할(내적 역할) 속에 '무엇인가를 지시한다'라는 지시적 본성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⁴⁾

두-요소 CRS에 기초한 이러한 답변과는 달리 한-요소 CRS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지시적 요소는 전체 개념적 역할에 통합됨으로써 의미를 구성한다. 하지만 한-요소 CRS의 이러한 주장은 '그렇다면 지시적 요소가 전체 개념적 역할에 어떻게 통합되는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물음을 안게 된다. 이는 CRS가 앞으로 탐구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필자는 '맺음말'을 통해 이 물음의 진정한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2.2. Searl과 Kuhn에 대한 답변 제공⁵⁾

Searl의 중국어 방 논변⁶⁾에 대한 그럴듯한 답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시스템 답변(System Reply)'을 들 수 있다. 시스템 답변이란 간단하게 말해 중국어 방안에서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를 가장하고 있는 P는 중국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입력 및 출력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은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중국어 방 논변에 대한 CRS의 분석은 바로 이 시스템 답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CRS는 이러한 '시스템 답변'이 실제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4) 이러한 의미와 지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Fodor&Lepore(1992, chapter 6)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들에 따르면 Block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물'의 개념적 역할이 '물'이 무엇을 지시하는 가를 결정한다가 아니라, 이름들의 개념적 역할은 '그것들의 인과적 관계들이 그것들의 지시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Block의 주장이 표현E가 '이름'의 외연이 되기 위해 만족해야 할 조건을 상술할 뿐, E의 sense가 E의 외연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5) Block, N. (1994).

6) 중국어 방 논변에 대해서는 Searl, J. (1980)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417-24.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미(autonomous meaning)'에 아무런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자발적 의미'란 사고가 사고 자체로서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번역 등의 2차적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의미를 가리킨다. 시스템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P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언어 이해가 올바른 언어 이해이기 위해서는 '자발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발적 의미'는 올바른 개념적 역할을 상술함으로써만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올바른 개념적 역할이란 위에서도 살핀 바 개념들 간의 관계적 요소와 개념과 대상의 실제적인 인과적 연결을 드러내는 환경적 요소의 통합에 의해서만 상술될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 답변은 바로 '개념과 대상의 실제적인 인과적 연결을 드러내는 환경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언어 이해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어 방 논변에 대한 CRS의 두 번째 분석⁷⁾은 단순한 흉내(simulation)와 실제적 예화(actual instantiation, emulation)의 차이에 기초한다. 만약 시스템이 중국어 화자에 대한 단순한 흉내에 불과하다면 시스템은 결코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시스템이 중국어가 중국어 화자에서 갖는 개념적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동등하게 예화하는 것이라면 이때는 시스템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적 예화라는 것이 진정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답변'이 유효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Kuhn⁸⁾의 '개별적 정의 불가능성'은 상이한 과학 이론 체계들 간의 의사 소통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과학자들이 과거의 어떤 과학 이론 예를 들어 18세기의 화학 이론인 '플로지스톤 이론'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현대 과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플로지스톤 이론에 포함된 과거 개념들'에 대해 현대 언어로 구성된 개별적 정의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물론 이러한 정

7) Block, N. (1986).

8) Kuhn, T.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p 9.

의는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플로지스톤 이론에 포함된 구(舊) 개념들’을 표현하고 있는 18세기 언어에 대한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T_1, T_2, T_3, \dots, T_n$ 이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로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때, T_i 에 대한 정의는 이 그룹의 외부에 있는 어떤 용어들(여기서는 현대 화학 이론의 용어들)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T_i 는 또 다른 T_i 들과 함께 서로 상호적으로 정의하고 정의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CRS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언어 학습 메커니즘에 기초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진행 과정 혹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T_i 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T_i 들을 배운다. 그런데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T_i 들의 역할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플로지스톤 이론가들이 사용한 ‘원리(principle)’라는 단어의 기능적 역할은 현대 화학 혹은 물리학의 어떠한 용어(혹은 용어들의 복합체)의 기능적 역할과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플로지스톤 이론가들의 생각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18세기 용어들의 기능적 역할과 근사한 기능적 역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언어 학습에 대한 CRS의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 ‘Fodor의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Block은 ‘Fodor의 패러독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⁹⁾ 첫째, 단어 의미 학습은 가설 형성, 테스트의 문제이다. 둘째, 새로운 단어의 학습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에 의한 정의 가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은 분해되어 정의될 수 있다. 넷째, ‘추적하다(chase)’에 대한 학습은 단칭(single) 사고 언어 [추적하다]에 의해 정의된다. 즉 ‘추적하다’는 [추적하다]를 의미한다.¹⁰⁾ 다섯째, 따라서

9) Block, N. (1986).

10) 이러한 Fodor의 주장은 단어의 의미 결정이 원자적으로(atomic)으로 이루어짐을 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odor의 원자적 의미론(Fodor & Lepore(1992, chapter 3))은 표현의 유형(type)과 사례(token)의 구분에서 기인한다. Fodor에 따르면, ‘Snow is white’라는 문장의 의미는 ‘합성의 원리

우리가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어 단어들이 정신어의 선천적 용어들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CRS에 따르면 이러한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효소(enzyme)’, ‘모니터(monitor)’, ‘지퍼(zipper)’ 등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배울 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어떤 용어들로 이루어진 정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두 번째 주장에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용어의 학습은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용어의 기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위의 단어들을 배울 때 그것들에 대한 정의가 아닌 그것들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위 단어들의 기능을 배운다는 것은 그것들의 용법을 배운다는 것으로 이는 곧 CRS에서 요구하는 ‘역할의 포괄적 습득’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CRS는 ‘개별적 정의 불가능성’을 ‘역할의 포괄적 습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2.3. 자비 원리에 대한 정당화 제공

자비의 원리란 타인들이 생각하는 바 혹은 말하는 바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자비로운 해석’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비로운 해석이란 타인들이 생각하는 바 혹은 말하는 바의 참이나 합리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해석을 뜻한다.

(compositionality)’에 따라 ‘This is snow’의 의미와 ‘This is white’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합성의 원리’의 요구는 표현의 유형과 표현의 사례 사이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표현의 사례만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사례만으로 이루어진 언어에 대해서는 원자적 의미론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Fodor의 주장처럼 ‘원자적 의미론’의 가능성 자체는 ‘합성의 원리’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원자적 의미론’의 가능성이 보여줄 수 있는 혹은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있는가에 있다. 일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언어 학습의 가능성’을 원자적 의미론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언어 학습이 원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결코 그토록 풍부한 우리의 언어를 평생 노력해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원자적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는 ‘창조성’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원자적 의미론의 가능성’ 주장은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때에만 주장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비의 원리는 Quine(1960, Chapter 2)의 '원초적 번역'과 Davidson (1984, Essay 9)의 '원초적 해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Davidson은 '원초적 해석'의 요청을 통해 해석 대상과 해석자 간의 믿음의 일치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후 해석자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참임을 가정함으로써 해석 대상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Davidson의 이러한 자비의 원리 요청은 다음의 비판에 직면한다. 첫째,¹¹⁾ 해석 대상P의 믿음들이 참이고, P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P가 자신의 믿음들 중 어떤 믿음이 참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의 믿음들 중 어떤 것이 참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B라는 어떤 특정 믿음이 참인가라는 물음에 P는 답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¹²⁾ 일반적으로 해석자는 '해석 대상P의 믿음들'을 자신의 믿음들과 항상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I는 "P에 주어진 증거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경우 자신이 가질" 믿음들을 P에 귀속시키면 충분하다. 즉 해석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이다. P는 I가 증거에 반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증거에 반응한다.

셋째,¹³⁾ "I는 P가 전반적으로 거짓되지 않도록 P를 해석해야 한다"로부터 "P는 실제로 전반적으로 거짓일 수 없다"는 따라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양자는 논리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비의 원리에 대한 요청은 해석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믿음 혹은 언어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즉 자비로운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 이유는 해석과 무관한 '믿음과 언어에 대한 독자적인 사실'이 '자비롭지 않은 해석은 항상 부정확하다'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자비의 원리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에 직면하여 CRS의 자비의 원

11) 위의 논문 참조.

12) McGinn, C. (1986) 'Radical Interpretation and Epistemology', in E. LePore (ed.) *Truth and Interpretation: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Donald Davidson*, Oxford: Blackwell, 1986, 356-68.

13) Brueckner, A.L. (1986) 'Charity and Skepticism',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7 (4): 264-268.

리 옹호는 자비의 원리 버전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Block¹⁴⁾에 따르면 올바른 자비의 원리는 위에서 제기된 비판들 때문에 참된 믿음에 대한 일치가 아닌 정합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합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자비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불합리한 믿음 귀속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석자가 해석 대상을 무한정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해석 대상의 발화 혹은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 합리적이지 않은가? 아마도 CRS는 이에 대해 ‘빈약한 역할 대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최고의 번역이라 자처하는 것이 매우 빈약한 역할 대응을 낳는다면 우리는 해석 대상의 개념체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자가 해석 대상의 믿음이나 발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 대상이 갖는 믿음의 개념적 역할을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발화나 믿음의 의미 혹은 내용 확인이 다른 아닌 개념적 역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믿음 귀속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빈약한 역할 대응을 통해서만 개념의 내용 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며, 어떤 것이 ‘믿음 귀속’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믿음이 갖는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믿음의 역할이 ‘환경적 역할’을 포함하는 한 ‘믿음 귀속’의 가능성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CRS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념적 역할 의미론’에 대한 비판들

3.1. CRS는 오류를 설명하지 못한다.

Fodor(1987, chap3)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오류(예를 들어 개를 보고 ‘늑대’라고 말하는 경우)를 범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호가 다른 기호들 혹은 세계와 갖는 모든 개념적 연결들 중 어떤 것이 옳

14) Block, N. (1986).

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아마도 이러한 오류의 문제에 대한 CRS의 직접적인 답은 '유관 기능'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개념의 내용이 개념의 역할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때, 이때의 개념의 역할이란 '개념이 정상 문맥에서 갖는 올바른 기능적 역할'을 가리킨다. 그런데 '개념이 정상 문맥에서 갖는 올바른 기능적 역할'이란 개념의 유관 기능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가리킴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오류의 문제'는 개념적 역할의 개별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념적 역할의 개별화 방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와 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념적 역할의 개별화 문제'는 '개념적 역할이 같다 혹은 다르다'는 표현이 과연 의미 있는 표현인가 라는 물음에서 비롯된다. CRS에 있어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CRS는 개념의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다분히 전체론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념의 역할 구조를 일종의 개념 네트워크(개념 망)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의 의미 대응 혹은 개념의 역할 대응은 개별 역할들 간의 대응이 아닌 네트워크간의 포괄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CRS가 함축하는 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RS가 함축하는 이러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 즉 전체론적으로 이해된다면 CRS는 3.2.에서 살펴볼 전체론에 제기된 심각한 비판들에 대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3.2. CRS는 전체론을 함축한다.

개념이 관계적 역할 혹은 추론적 역할을 갖는다는 말은 개념이 어떤 추론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추론에서의 개념의 사용은 개념이 추론을 타당하게 만드는 어떤 함축의 전건이나 후건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의 추론적 역할이 개념의 내용

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함축에서 개념의 전건으로의 혹은 후건으로의 사용이 개념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적 역할은 유일하게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개념의 역할 확인이 관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통합을 요구할지라도 이러한 통합이 관계적 요소를 포함하는 한 개념의 역할 확인은 비원자적으로(anatomistically) 즉 전체론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념적 역할 의미론은 분자주의를 택함으로써 이러한 반직관적인 귀결을 함축하지 않는다고 필자는 주장하고자 한다. 개념적 역할 의미론의 분자주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개념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추론적 역할이 개념의 역할을 상술하는, 그럼으로써 개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추론적 역할은 개념의 내용을 결정하는 추론적 역할(따라서 의미 구성적 역할)과 그렇지 않은 추론적 역할(의미 비구성적 역할)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각]→[결혼하지 않은 남자]¹⁵⁾에서 [총각]의 전건으로의 사용은 [총각]의 내용을 결정하지만 [총각]→[토론을 싫어한다]에서 [총각]의 전건으로의 사용은 [총각]의 내용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미 구성성(meaning compositionality)에 대한 분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아마도 이러한 반론은 의미 구성성이 분석성(analyticity)을 함축하기 때문에 분석/종합의 구별이 의심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 구성성 역시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한다. '의미 구성성이 분석성을 함축한다'를 거부함으로써 개념적 역할 의미론은 분석/종합 구별을 거부하면서도 의미 구성적 추론/의미 비구성적 추론의 구별을 수용할 수 있다. 의미 구성성의 분석성 함축에 대한 반대 논변으로 필자는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미 구성적 추론이 반드시 분석적 추론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즉 종합 추론 역시 의미 구성적 역할을 가질 수 있기 때문

15) []의 표시는 [] 안에 있는 단어의 개념 내용을 나타낸다.

에 의미 구성성은 분석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종합 추론이 의미 구성적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기인한다. 개념의 역할 상술은 관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통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 구성적 역할 역시 이 두 요소의 통합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의미 구성적 역할은 분석 추론과 종합 추론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의미 구성성은 분석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둘째,¹⁶⁾ 의미 구성성이 관계적 요소만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지라도 의미 구성성은 분석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이는 협소 내용과 포괄(외적) 내용의 구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의미 구성성이 관계적 요소에만 적용된다는 말은 협소 내용이 의미 구성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협소 내용이 의미 구성적일 경우 협소 내용은 분석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협소 내용은 참, 거짓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소 내용에는 참, 거짓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에 의한 참인 분석적일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두 논의는 '의미 구성성이 분석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를 보이기 위해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제 CRS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의미 구성성' 확인의 문제가 CRS에는 강력한 요청으로 남아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즉 개념의 내용 결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의 상술은 개념의 내용을 결정하고 어떤 역할의 상술은 개념의 내용 결정에 무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필자는 아쉽게도 이를 개념적 역할 의미론에 대한 일종의 탐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3.3. CRS는 합성원리(Compositionality)를 설명하지 못한다.

인간은 무한히 많은 복잡한 사고들을 파악할 수 있고, 단순한 문장들에 기초해서 복잡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고 혹은 의미는 합성적이다'는 사실이다. 의미가 합성적이라는 말

16) Horwich, P. (1994) 133-154 참고.

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복합 표현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 표현들의 의미와 단순 표현들의 결합 방식에 의존함을 가리킨다. 따라서 CRS가 의미에 대한 설명인 한 CRS는 이러한 합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CRS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론적 역할 역시 합성 원리를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합추론의 가능성은 이러한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종합추론의 가능성은 비합성적인 추론적 역할의 가능성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추론적 역할은 ‘의미는 합성적이다’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의미가 과연 합성적인 것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들 중 많은 것들이 비합성적인 의미를 갖고 위 비판이 요구했던 것처럼 명백하게 합성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숙어적 표현들을 비롯하여, 언어 사용은 수학적 규칙성이 아닌 관습적 규칙성을 갖는 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언어 표현이 합성적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부당한 요구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의미의 문맥 민감성에 대한 무신경에서 비롯된다. 즉 의미는 문맥 의존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적 표현도 그 표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문맥이 어떤 문맥인가에 따라 합성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맥 의존적 요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다름 아닌 ‘역할의 통합적 상술’이다.

즉 관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통합적 상술 요청의 근거는 의미의 문맥 민감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의미는 고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문맥 의존적이다’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역할 상술이 관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CRS의 핵심 주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의 고정적 측면은 개념의 관계적 요소를 통해 마련되고 이렇게 마련된 고정적 측면은 개념의 환경적 요소를 통해 확증 혹은 반증됨으로써(즉 환경적 요소는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한다) 의미

의 문맥 민감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필자 나름대로 CRS의 비판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그에 대한 CRS의 가능 답변을 살펴보았다. 개념의 역할 확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오류의 문제는 개념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고, CRS의 전체론 함축 문제는 CRS가 분자주의를 선택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으며, CRS가 합성원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의미구성성과 합성의 원리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음을 지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3의 주된 내용이었다. 본 맺음말에서 필자는 이러한 비판을 살피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CRS의 향후 과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첫째, CRS는 의미 구성성(meaning constitutivity)에 대한 개별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미 구성성에 대한 개별화 기준'이란 CRS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CRS는 개념의 역할을 통해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표현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의 역할들 중에서 어떤 것이 혹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표현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의미 구성적인 개념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Peacocke(1992, chap7)은 의미 구성적인 개념적 역할에 포함되는 추론을 '원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추론들(primitively compelling inferences)'이라 불렀고, 논리적 규칙들(연언 도입 규칙, 연언 배제 규칙, 선언 도입 규칙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았다. Horwich(1994)는 의미 구성적인 역할들이란 협소 심리상태(narrow psychology)에서 '설명적으로 기초적(explanatorily basic)'인 것들로, 다른 사용 규칙들을 설명하고 협소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명적으로 기초적인 규칙(regularities)'이라 불릴 수 있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미 구성성'에 대한 설명이 그리 적절한지는 앞으로 더 살펴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Peacocke의 경우 '종합 추론을 포함하는 개념적 역할이 의미 구성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Horwich의 경우 '개념의 내용은 개념의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통합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CRS에서 요구하는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통합'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CRS에서 요구하는 두 역할의 통합은 두 역할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 보완적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아니 어쩌면 이 요구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요구는 다음의 색 형성 과정에 대한 물음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된다. 이때 빨간색과 노란색은 주황색의 형성 과정에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상호 보완적 작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빨간색과 노란색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길래 녹색이나 보라색이 아닌 주황색이 형성되는 것인가?

어쩌면 CRS는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통합 요구를 생물학적 가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 Steven Pinker(1998)는 언어 학습 가능성을 문법 유전자를 통한 언어 본능에 의존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그에게 있어 언어란 거미의 직조술이나 박쥐의 음향탐지 능력과 같이 오랜 진화적 적응과정을 통해 발생한 하나의 본능인 것이다. 따라서 만약 CRS가 이러한 직관을 수용할 수 있다면 추론적 역할과 환경적 역할의 통합은 그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문법 유전자를 통해 언어 사용자의 본능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탐구 방법은 '문법 유전자'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에 대한 탐구에 있어 철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의미'를 비롯하여 모든 물음들이 과학적 탐구에 의존한

다면 현대와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 혹은 과학이 더 발달할 어떤 시대에 '철학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물음들은 당연히 던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철학은 문제 상황을 보다 명료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적어도 과학에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CRS가 주장하는 사항들의 의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즉 의미의 문제를 개념의 문제로, 개념의 문제를 역할의 문제로 다루려 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에 유관한 과학적 탐구 방식에 모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CRS의 의의는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Block, N.(1986), "Advertisement for a Semantics for Psychology," in P. French et al.(ed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10,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615-678.
- _____ (1987), "Functional Role and Truth Condition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61: 157-181.
- _____ (1993), "Holism, Hyper-Analyticity and Hyper-Compositionality," *Mind and Language* 8 (1): 1-27.
- _____ (1994), "An Argument for Holism,"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ew series, 94: 151-169.
- Brueckner, A.L.(1986), "Charity and Skepticism,"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7 (4): 264-268.
- Davidson, D.(1984), "Truth and Meaning,"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7-36.
- _____ (1984),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s,"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55-64.
- _____ (1984), "Radical Interpretatio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25-139.
- _____ (1984), "On the Very Idea of a Conceptual Scheme,"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83-198.
- Fodor, J.(1975), *The Language of Thought*, New York, chap 2.
- _____ (1987), *Psychosemantics: The Problem of Meaning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MA: MIT Press, chap 3.
- Fodor, J. and Lepore, E.(1992), *Holism: A Shopper's Guide*,

- Oxford: Blackwell, chaps 1, 3, 6, 7.
- Frege, G.(1980), "On sense and reference," in Peter Geach and Max Black (eds), *Translation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Oxford: Basil Blackwell, 56-78.
- Harman, G.(1968), "Three Levels of Meaning," *Journal of Philosophy*, 65, 590-602.
- _____ (1973), *Thought*,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aps 4, 6.
- _____ (1974), "Meaning and Semantics," in Milton K.Munitz and Peter K. Unger(eds), *Semantics and Philosoph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4, 1-16.
- _____ (1975), "Language, Thought, and Communication," in Keith Gunderson (ed.), *Language, Mind and Knowledg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70-298.
- _____ (1987), "(Nonsolipsistic) Conceptual Role Semantics," in Ernest Lepore(ed.), *New Directions in Semantics*, London: Academic Press, 1987, 55-81.
- _____ (1988), "Wide Functionalism," in *Reasoning, Meaning, and Mind*, 1999, Oxford: Clarendon Press, 1999, 235-243.
- _____ (1990), "The Intrinsic Quality of Experience," *Philosophical Perspectives*, 4, 1990, 31-52.
- Horwich, P.(1994), "What it is Like to be a Deflationary Theory of Meaning," in E. Villanueva(ed.), *Philosophical Issues*, vol 5, *Truth and Rationality*, Atascadero, CA: Ridgeview, 133-154.
- Klein, P.(1986), "Radical Interpretation and Global Skepticism," in E. LePore(ed.), *Truth and Interpretation:*

-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Donald Davidson*,
Oxford: Blackwell, 1986, 369-86.
- McGinn, C.(1986), "Radical Interpretation and Epistemology," in
E. LePore(ed.) *Truth and Interpretation: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Donald Davidson*,
Oxford: Blackwell, 1986, 356-68.
- Quine, W.V.(1953), "Two Dogmas of Empiricism,"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1960), *Word and Object*, Cambridge, MA: MIT
Press, chap 2.
- Searl, J.(1980),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417-24.
- _____(1990), "Is the Brain's Mind a Computer Program?,"
Scientific American 262: 26-31.
- Steven Pinker(1994) *The Language Instinct*, John Brockman Inc,
김한영, 문미선, 신호식(1998) 옮김, 『언어 본능』 서울: 도
서관출판 그린비
- Stich, S. and Warfield, T.(eds)(1994), *Mental Representation:
A Reader*, Oxford: Blackwell, chap 1, 2, 3.